

**헝가리, 2020년까지 낙농산업 30%까지 성장 전망**

헝가리 유제품 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자국내 연간 우유 생산량이 현재 생산량 17억리터에서 11%에서 최대 30%까지 성장한 20억에서 22억리터 내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같은 우유 생산량 증대로 1인당 우유 소비량은 현재 연간 160리터에서 200리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물량은 현재의 연간 40만톤수준에서 60만톤으로 늘어나지만 반면에 수입물량은 총 수요량의 20%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젖소 개량체계 도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대응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한편 농업개발성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번식 농가 감소로 화우 송아지 가격 폭등**

일본의 화우 송아지 가격이 번식농가의 감소로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농협인 JA전농에 따르면 9월기준 화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대비 24%가 상승한 50만8천15엔으로 지난 '07년12월 이후 5년 9개월만에 50만엔을 돌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의 송아지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5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농축산업 진흥기구에서 조사한 육용 송아지 거래정보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폭등의 원인은 전국적인 송아지 부족현상으로 농림성의 축산통계에 따르면 소 사육농가는 지난 1957년이후 56년동안 연속하여 감소되어 왔고 금년도 2월 기준 농가수는 전년대비 6%가 감소하여 6만1천3백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송아지 생산용 번식우는 전년대비 3.7%가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 전국 송아지의 15%를 차지하

는 미야자키현에서 지난 '10년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11년 흑모화우의 출생두수가 전년대비 60-90%정도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로 번식우 3천두가 줄어든 것도 송아지 부족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관계 당국은 이같은 송아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육농가들의 송아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보조금 지급 차질로 우유 생산량 급감**

러시아의 금년도 우유생산량이 낙농가들에 대한 저리 대출금 및 보험 지원금 같은 정부 보조금 지원 차질로 50만톤 이상 줄어들어 3천14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같은 생산량은 소련 연방 해체이후 최저 생산량인 3천1백만톤에 이은 두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사료가격의 하락과 유대의 상승과 같은 낙농가들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보조금은 통상 지불시기가 너무 늦고 그나마도 당초 금액 수준보다 감액 지원되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고박내야 하는 낙농가들은 지연시에는 추가 이자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 파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생우 두수도 금년도에는 3분의 1수준인 5만3천여두 수준으로 줄었으나 수입 유제품 수요는 늘어 치즈 수입량이 37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1만톤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탈지분유 수입량도 당초 예상량보다 1만톤 정도 늘어난 11만톤, 전지분유는 50%정도 늘어난 4만5천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유제품 수입을 유럽연합이나 뉴질랜드외에 인근 벨라루스와 무역협정을 맺고 상당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